◈ 2강: 칸트 vs 니체
: 우리가 보는 세계는 모두 동일한가? ◈

관찰자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자는 모든 지식의 기초입니다. 인간 자신, 세계 그리고 우주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장의 기초입니다. 관찰자의 소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종말과 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각하고, 말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투라나(Maturana), 『있음에서 함으로(From Being to Doing)』

1. 사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 우리는 현상(Erscheinung) 일반의 원인, 다시 말해 단지 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을 '초월론적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수용성으로서의 감성(Sinnlichkeit)에 대응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한 지각들의 모든 범위와 연관을 이 '초월론적 대상'에 귀속시킬 수 있고, 이 '초월론적 대상'은 일체의 경험에 앞서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상은 이 '초월론적 대상'에 적합하도록,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경험 가운데 주어져 있을 뿐이다. 현상은 단지 표상(Vorstellung)일 뿐이고, 표상은 '지각이 다른 모든 지각과 경험을 통일하는 법칙에 따라서 연결될 때' 단지 지각으로서의 '현실적 대상'을 의미할 뿐이다.-『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 칸트에게 있어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현상'이자 '표상'이고 '현실적 대상'이라면, 태양 자체가 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초월론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초월론적 대상이 칸트의 유명한 '사물 자체(Dinge an sich, the thing-in-itself)'이다. 결국 우리의 현상세계 혹은 표상세계란 것은 우리의 인식능력과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물 자체와의 마주침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세계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은 이 '초월론적 대상'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적 대상이 초월론적 대상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초월론적 대상은 우리의 인식을 촉발하지만, 우리는 현상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론적 대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초월론적 대상, 혹은 물 자체는

타자의 타자성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물 자체란 우리의 추상일 뿐이다.

◈ 현상(Phäomen) 세계는 우리가 실제라고(real) 받아들이는 정돈된 세계다. "실재성"은 동일하고 알려져 있고 유사한 사물의 지속적인 회귀에, 그것들의 논리화된 성격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산정할 수 있다는 믿음에 놓여 있다. (...) 우리의 감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물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은 다음의 질문에 의해 거부되어야만 한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사물성'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상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논리화, 정돈, 위조 행위야말로 최고로 보증된 실재 자체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유고(Nachgelassene Fragmente): 1887년 가을-1888년 3월』

▶ 우리 눈에는『순수이성비판』을 넘기며 칸트와 씨름하고 있는 니체가 눈에 잡히는 듯이 다가온다. 특히 "우리의 감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물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칸트의 물음을 다시 숙고하는 대목에서는 니체가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니체는 칸트의 물음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꾸면서 이 물음 자체를 해체하려고 했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 니체는 사물 자체의 존재란 단지 현상세계에 대한 앎, 혹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추상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다시 말해 "사물성이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가 현상세계 너머를 엿보려고 할 때, 니체는 현상세계를 그 자체로서 긍정하려고 했다.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고 실체의 세계를 기웃거리는 칸트의 모습에서 니체는 초월자를 중시했던 기독교의 신학적인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현상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그것이 칸트처럼 사물 자체의 세계이든 혹은 기독교에서의 천국이든 간에 긍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추상적으로 정립된 세계에 골몰하느라 자신의 현상세계와 현실적인 삶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사물 자체란 것이 결국 인간만의 추상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체는 다른 생물종들까지 자신의 논의에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상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을 수 없는가?" 인간의 감성과 오성과는 다른 인식 능력을 가진 생물종들은 우리와는 다른 현상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물종마다 고유한 현상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즉 관점주의(perspectivism)이다.